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워케이션으로 뜬다

도민 대상 워케이션 · 1일투어 등 체험프로그램 선보여

인재개발원 '5급공무원 리더십 과정' 교육생 호응 얻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도민들에게 한 발 더 친숙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 군산시 소재)에서 6월 3일부터 일반 도민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월, 전국 최초 개관한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인 혁신타운의 인프라와 인근 문화관광 체험을 연계한 것으로 혁신타운 시설 홍보는 물론, 도민이 사회적 경제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원격지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기는 최신 트렌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신식건물로 쾌적한 환경이 강점인 혁신타운의 회의공간, 도서관, 식당 등 신식 공간에서 하루 혹은 이틀간 근무하며 근처 은파호수공원 산책, 근대역사박물관 탐방 등 인근 문화관광지를 둘러보도록 구성됐다.

또한, 1일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타운의 첨단장비를 활용한 머그컵, 에코백 등 소품 제작 △1년 후 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느린 우체통 △'생활 속 사회적경제' 교육 △군산지역 문화탐방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2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 '5급 공무원 리더십 과정' 교육생 30여 명이 먼저 1일 투어를 경험했다.

이들은 혁신타운을 방문해 지역 내 볼거리, 먹거리, 체험 거리를 즐기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교육과정을 체험한 교육생 안성옥 사무관은 "평소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던 차에 사회적 경제의 거점 공간인 혁신타운을 방문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시설 내부를 둘러보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도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완주군 이서면 소재)의 현장교육과정에 이번 프로그램 편성을 제안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관광지, 전북특별자치도'를 알리는데 발 벗고 나선다는 방침이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도민들에게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앞으로도 참여 대상을 더 넓혀 혁신타운이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기관은 6월 3일부터 혁신타운 홈페이지(www.jbse.or.kr) 또는 공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고군산군도의 장자교 스카이워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병관 부지사, 고군산군도서 안전 점검

스카이워크 중점 확인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22일 2024년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자교 스카이워크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점검은 유례없이 높은 기온으로 바닷가인 고군산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시설 점검과 함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집중안전점검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장자교 스카이워크는 1986년 길이 268m로 장자도와 선유도를 연결하는 해상 인도교였으나, 2023년 일부 구간을 투명한 바닥으로 교체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 재개통한 다리다.

최 부지사는 시설 현황과 그간 보수보강 공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토목 및 전기분야 민간 전문가 점검 결과를 청취했다.

이후 전북자치도 방재 안전 공무원이 운전하는 드론 카메라를 활용해 스카이워크 하부 부분을 모니터링 하며 나사 체결 부위나 도장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다리를 둘러보며 보수공사 지점과 난간 상태, 강화유리 상태를 차례로 점검했다.

최 부지사는 군산시 관계자들에게 강풍 또는 풍랑 출입 통제 방법 및 휴일 인파 밀집 시 수용인원 분배 방법 등을 꼼꼼하게 물어봤다. 덧붙여 도내 출렁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며 자살 방지를 위한 안내 문구 부착까지 세밀하게 챙겼다.

점검을 마치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다시 한번 안전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며, "안전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서 상생 워크숍

특례발굴부터 입법, 실행화 단계까지 성공전략 논의 활발

전북은 재정, 강원은 이민 중심 국회세미나 열기로 합의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입법단계 연대 및 공동과제 연구 등에 나서고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도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입법단계 연대 및 공동과제 연구 등에 나서고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전북연구원 · 강원연구원 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자치도에서 환경적 요소와 제도개선 과제 등이 유사한 강원자치도와 공통된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절차 과정에서 연대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및 주요 특례'를 주제로 각 도의 담당과장의 발표가 이어졌고, 특별자치도 추진 경과와 특징, 그리고 특례를 중심으로 차이점과 공통점을 제시하며 공감대를 끌어냈다.

특히, 재정 · 조직 등의 자치 분야, 더 큰 확장이 필요한 이민과 산지 분야 등은 향후 특별자치도의 성공 기반에 필수적인 과제로서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전북자치도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통교부세 보정 등 재정 특례 확보를 위해 강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제22대 국회 가동 이후 양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공동간담회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연구원들의 '공동 아젠다 제안 및 연구 방안' 발표가 이어졌으며, 양 연구원은 공동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공론화는 물론 논리 보강 과정을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 ·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 등 입법 활동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전북과 강원이 출범 시기, 특별법 개정 추진 등이 비슷한 상황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도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다."라며, "강원과 공동연구, 세미나, 협약체결 등 협력 활동을 통해 한목소리를 키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날인 23일에는 원주의 테크노파크 현장을 방문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계획과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양 도는 각 지역의 맞춤형 특례가 개발되는데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도,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사회재활교사 30명 충원

올해 전북자치도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사회재활교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올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 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사회재활교사 30명을 충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일상생활훈련 △기초건강 관리교육 △사회적응 활동 △문화 여가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복귀 및 재활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복지부 지침은 주간이용시설 이용장애인 3명당 사회 재활교사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내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은 총 35개소, 사회 재활교사 173명, 이용장애인 615명으로 보건복지부 인력배치 기준에 못 미치는 상황이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올해 부족한 사회 재활교사 30명을 충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5억 4천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지역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 및 자립 향상과 사회통합의 기회 제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시군, 행안부 세종청사서 고향사랑기부제 합동 홍보 추진

전북자치도가 행정안전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 홍보에 적극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가정의달 고향사랑 기부제 집중 홍보의 일환으로 22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를 찾아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북자치도와 9개 시군(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이 함께했다.

도와 시 군은 직원의 이동이 많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행정안전부 청사 로비에서 각 지역의 대표답례품을 전시?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전북 고향사랑 기부제와 특색있고 우수한 답례품을 동시에 알렸다.

또한, 기부 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부를 인증하면 전북 대표답례품인 십리향, 정읍 쌍화차, 완주 고산 탁주, 무주 머루와인 등을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기부자들의 흥미를 유발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오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지방자치회관에서 진행되는 '제2회 특별자치 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 박람회'에 참여해 고향 사랑 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고향 사랑 기부제 집중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 사랑 기부제는 지역에 기부함으로써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제도"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